

통도(通度)의 가풍(家風)



우리들 모두 통도의 산문에 들어와 처음 식발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던 시절,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천자각!
조실스님도 부럽지 않던 그 황화각(皇華閣·天子閣)의 주련에 이런 말씀을 우리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大護法不見僧過

위대한 불법의 보호자는 스님의 허물을 보지 않으며,

善知識能調物情

위대한 스승은 중생의 마음을 다스려 주네.

百戰英雄知佛法

백전영웅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再來菩薩說家常

다시 태어난 보살은 일상사를 말씀하시어,

永使蒼生離苦海

영원히 중생들을 고태에서 벗어나,

恒教赤子有慈航

항상 어린 중생들에게 자비의 배가 되어주시네.”

이제 모든 총림의 대중들은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모신 선지식(善知識) 방장(方丈)스님의 뜻을 받들고, 방장스님을 중심으로, 새 주지스님과 함께 개개인의 허물과 모자람을 감싸주는 선지식이 됩시다. 그리고 백전영웅으로 환생한 보살이 되어, 자비의 배를 띄워봅시다. 영축총림의 대중들이 지금까지 한국불교의 금지요, 자부심으로 살았던 사풍(寺風)을 더욱 진작시키고, 본분사(本分事)를 투탈(透脫)하는 본분납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80평생 중생을 위하여 오직 보리심(菩提心)으로 사셨던 삶에 부끄럽지 않은 보살이 되고, 역대조사(祖師)들의 법등(法燈)을 밝혀갈 쇠락(洒落)하고 당당(堂堂)한 청정대중이 됩시다.

**영축총림 통도사의 법통을 수호하고
청정승가를 위한 모임 일동 구배**